DOI | https://DOI.org/10.21481/jbunka..81.201905.005.

해방 이후의 재일제주인 잡지 미디어 연구*

—재일제주인의 지역정체성과 로컬리티—

소 명 선**
(e-mail : smskk0604@jejunu.ac.kr)

<목 차>

1. 들어가며
2. 재일조선인과 재일제주인
3. 해방 이후의 재일제주인 잡지 미디어
3.1. 재일제주인 단체의 각종 회보지
3.2. 종합문예지『제주도』
4. 재일제주인의 지역정체성과 로컬리티
5. 나오며

キーワード：在日済州人(the Jeju Islanders in Japan), 雑誌メディア(magazine media), 耽羅研究会(Tamra Study Group), 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regional identity), ローカリティ(locality)

1. 들어가며

본고의 출발점은 이하의 두 가지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그 하나는 2016년부터 시작한 재일조선인 관련 신문 및 잡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논자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 잡지와 같은 정기 혹은 비정기 간행물뿐 아니라 각종 회지와 생활지, 정보지 등 수많은 종류의 미디어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독특한 종류의 간행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제주도', '탐라', '한라산' 등과 같은 한국의 특정 지역명을 달고 있는 간행물로서, 제주도 출신의 재일조선인이 주축이 되어 발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잡지의 경우 조국을 상징하는 명칭이 잡지명으로 사용되는 예는 종종 발견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구체적인 지역명을 내세운 간행물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제주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www.kci.go.kr

은 흔하지 않다. 타 지역 출신자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이러한 제주도 출신자의 미디어 활동 양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재일조선인문학을 연구해 오면서 재일작가 중 유독 제주도 출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2006년에 발행된 『〈재일〉 문학전집(〈在日〉文学全集)』(勉誠出版, 2006.05)은 소설집 16권과 시가집 2권,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가집 2권을 제외한 소설집 16권에 수록된 작가 36명 중, 제주도와 연고가 있는 작가는 무려 12명[1]에 이른다. 일본 법무성이 공개한 2011년도 본적지별 외국인등록자 자료를 보면[2], 등록자 545,401명 중,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출신자가 258,198명으로 전체의 약 47.3%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86,231명으로 전체의 15.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온 문인들 중에 제주도 출신자가 유독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상기의 두 가지 의문에서 상호교섭성을 규명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문을 통해 재일제주인을 재일조선인이라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가 아닌 특수한 주체로서 전경화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재일제주인에 관한 연구는 특히 사회학 분야에서 제주도내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일본에서도 재일제주인사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해방 이후 재일제주인에 의해 발행된 잡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재일제주인에 의한 다양한 간행물에 대한 서지적 고찰과 함께 이들의 미디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특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재일제주인의 미디어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들의 존재를 특권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작업은 이미 범주화된 재일조선인이라는 틀 안에서 간과하기 쉬운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체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이고, 재일조선인에 의한 미디어 연구에 있어 상대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 『<재일>문학전집』에 수록된 36명 중 본적을 알 수 없는 작가는 12명이고, 제주도 출신자는 12명에 이른다. 이 외에 경상도 출신자 7명, 전라도 출신자 2명, 북한 출신자 2명, 사할린 출신 1명 등이다. 제주도에 연고를 둔 12명은 제주도를 본적으로 하는 김석범, 양석일, 이양지, 김태생, 현월, 김창생, 원수일, 김중명, 김길호, 종추월과 결혼한 남편의 친가가 제주도인 김마스미, 모친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지낸 시간이 긴 김시종 등 12명을 가리킨다.

2)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147242(검색일:2018.12.01.) *일본 정부통계 종합창구(e-Stat)가 2016년 12월에 공개한 재류외국인통계 자료 중 본적지별 외국인등록자를 통계한 자료는 2011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것으로, 이후에는 본적지별 조사 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www.kci.go.kr

2. 재일조선인과 재일제주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재일동포, 재일한국ㆍ조선인,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언 등 다양하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주체 혹은 용어의 기원에 관한 검토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일본사회 및 한국사회와 같은 외부세계가 그들의 머조리티사회와 구분하는 과정에서 유통되고 있는 용어임에는 틀림없다. 상기의 용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식민지종주국 일본에 거주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른 이들에 대해 외부세계가 지칭한 명칭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출신자의 경우, 외부세계에서 통용되는 여러 호칭을 거부하고 그들 내부세계에서 '재일제주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고, 이 용어를 외부세계로 발신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타 지역 출신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재일제주인은 동일한 재일조선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지역정체성을 강하게 표출하며 타 지역 출신자와의 차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2011년도 현재 재일조선인사회 속에서 전체의 약 47.3%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 출신자에 비하면, 제주도 출신자는 전체의 15.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이 해방 이전에는 75.8%가 그리고 2011년 현재는 55.7%가 집주해 있는 지역이 오사카(大阪)이다. 따라서 오사카라고 하면 '일본 속의 제주도'라는 수식이 어울리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오사카 내에서도 동부의 이쿠노구(生野区)와 히가시나리구(東成区)에 해당하는, 현재는 지명이 사라졌지만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지역은 해방 전부터 재일제주인의 집주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이카이노는 작가 현월(玄月), 원수일(元秀一), 양석일(梁石日), 종추월(宗秋月), 김창생(金蒼生) 등 제주 출신 작가의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찍부터 이 지역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재일조선인과 오사카지역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특히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한 지역학과 사회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김찬정(金賛汀)의 『이방인은 기미가요마루를 타고—조선인 거리 이카이노의 형성사(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書店, 1985.08), 스기하라 도루(杉原達)의 『월경하는 백성—근대 오사카의 조선인사연구(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1998.09), 그리고 양영후(梁永厚)의 『전후ㆍ오사카의 조선인운동(戦後ㆍ大阪の朝鮮人運動) 1945-1965』(未来社, 1994.0

www.kci.go.kr

8)은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생활사를 연구한 하라지리 히데키(原尻英樹)의 논고가 다수 존재한다.[3)]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논고를 산출하고 있는 분야가 재일제주인에 대한 생활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조선근현대사 연구자인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를 중심으로 오사카산업대학교(大阪産業大学)에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 출신자 16명의 생활사를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는 작업을 해 왔다. 고태수(高泰洙)의 경우, 제주도 출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사 조사를 통해 재일조선인 고령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 보고를 하고 있다.[4)] 그리고 오사카지역은 아니지만, 고선휘(高善徽)의 『재일제주도 출신자의 생활과정—관동지방을 중심으로(在日済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関東地方を中心に)』(新幹社, 1996.05)와 양성종(梁聖宗)의 「재일제주인의 도일과 생활: 도쿄에서의 제주ㆍ조천리 도민회의 사례(在日済州人の渡日と暮し:東京における済州ㆍ朝天里民会の事例)」(「白山人類学」(12), 2009) 등도 재일제주인의 생활사 연구에 해당된다.

1935년에는 제주도민 약 25만 명 중 5만 명, 즉 제주도민의 5분의 1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한다.[5)] 제주도민의 도일자 수를 증대시킨 가장 큰 이유는 1922년 아마가사키기선(尼崎汽船)이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를 운항함으로써 도항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제주도는 어업, 가내수공업, 농업 등 경제 제 분야에서 구조적인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사정과 맞물려 오사카지역에서 값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제주도민은 생활의 안정을 찾아 도항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1933년경까지 제주도 차원에서 도민의 도항을 장려했다는 점도 도항자수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6)] 그리고 해방 이후

3) 原尻英樹『コリアンタウンの民族誌 : ハワイㆍLAㆍ生野』(筑摩書房, 2000.03), 原尻英樹編『日本定住コリアンの日常と生活 : 文化人類学的アプローチ』(明石書店, 1997.03), 原尻英樹, 六反田豊編『半島と列島のくにぐに : 日朝比較交流史入門』(新幹社, 1996.09), 『在日朝鮮人の生活世界』(弘文堂, 1989.06) 등.

4) 高泰洙『大阪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高齢者福祉に関する研究:『済州島出身高齢者』のライフストーリ調査をふまえて』(四天王寺大学大学院人文社会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16.03). 그리고 庄谷怜子, 中山徹『高齢在日韓国ㆍ朝鮮人:大阪における「在日」の生活構造と高齢福祉の課題』(御茶の水書房, 1997.02)도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의 재일조선인 연구 범주에 속한다. 고태수의 논고로는 이외에도 「「在日済州島出身高齢者」のライフヒストリーの分析と考察」(「四天王寺大学大学院研究論集」(10), 2015), 「「在日済州島出身高齢者」のライフヒストリーからの福祉学的整理ㆍ考察」(「四天王寺大学大学院研究論集」(9), 2014), 「在日「済州島出身高齢者」のライフヒストリー(生活史)の形成過程とその背景—大阪を中心に—」(「四天王寺大学大学院研究論集」(7), 2013) 등이 있다.

5) 杉原達(1998)『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p.55.

6) 杉原達(1998)『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pp.92-93.

www.kci.go.kr

에도 도항자수가 꾸준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하라지리는 (1)제주도로부터는 서울보다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웠다는 점, (2)해방 이후 한국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인적자원의 수요가 많았다는 점, (3)친족과 마을 출신자가 이미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어 연쇄형 이민이 많았다는 점, (4)제주도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문화적 전통, 등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제주도민의 경우 일제치하의 강제연행과는 다른 형태로 도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일제주인이 집주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재일조선인사회에 존재한 출신지별 대립과 차별을 들 수 있다. 김석범의 대작인 『화산도』에서도 "정어리도 생선이냐, 제주도 새끼도 인간이냐"[8)]라는 제주도민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대표하는 서북청년단원들의 발언이 화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차별이라는 악습이 한반도를 떠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조선인사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산견된다. 스기하라가 1933년 일본사법성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9)] '육지인'의 '제주도민'에 대한 배척으로 인해 제주인들 사이에 배외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공동단결심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출신지별 대립이 제주인으로 하여금 오사카의 히가시나리구 일대에 집주하게끔 했고, 공장노동자의 경우도 동일한 공장에 취업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찬정은 "육지 사람과 제주도 출신자는 반목하고 있어서, 대정 말기, 처음에는 육지인이 수도 많고, 우리들을 섬 출신이라고 하여 멸시하고, 집단으로 짓궂은 짓과 괴롭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제주놈 대가리 두드리면 술이 나온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고 술을 사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10)] 라는 제주도 출신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역시 제주도 출신의 출판인 고이삼(高二三)도 "우리들 재일하는 조선인 2세 · 3세들 대부분은, 조선인끼리의 지역차별감정에 의한 폐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으며, 출신지역을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야말로 "극복해야 하는 봉건적 감정(의식)"[11)]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하라지리는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출신자는 육지인과 비교했을 때 직인 혹은 직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

7) 原尻英樹(1996)「日本敗戦後の在日朝鮮人:済州人の生活史」『半島と列島のくにぐに:日朝比較交流史入門』新幹社, p.182.
8) 金石範(1996)『火山島Ⅳ』文芸春秋, p.239.
9) 杉原達(1998)『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p.159.
10) 金賛汀『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書店, 1985.08) pp.86-87.
11) 高二三「通信20号の雑感」『済州研究通信』(20号、1989.01) p.7.

www.kci.go.kr

았고, 제조업을 자영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지리는 직종이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나는 관계 속에서 실리적인 면에서 집주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계망의 확대에 의해 이쿠노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2)]

그런데 재일조선인의 집주지역에 관한 연구 중에는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공간, 다시 말해 이주인과 정주인,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생활상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 내의 특성을 분석한 주목할 만한 논고가 있다. 재일조선인의 생활공간에서 형성되는 로컬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디아스포라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 이상봉의 논고가 그러하다.[13)] 이상봉은 로컬리티 연구에서 특히 재일제주인의 대표적인 집주지역인 오사카의 이쿠노 일대를 디아스포라적 공간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이쿠노는 제주도와의 연계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로컬리티를 지닌 공간이며, 이러한 로컬리티가 재일제주인의 "집주지역의 형성과 유지, 즉 디아스포라의 일상을 통한 경험과 실천에 중요하게 작용"[14)]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분석 과정은 선행하는 재일조선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로서 그들이 경험한 식민지 역사와 이주 배경, 그리고 집주지 형성의 원인과 머조리티사회와의 문화적 접촉과 공생 기반 등에 대한 분석에 의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집주지역에서 형성되는 로컬리티를 규명하고 있으나 선행하는 재일조선인 연구의 기본틀이 크게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상봉의 분석은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성된 로컬리티가 재일제주인의 특성을 규정짓고 있다는, 즉 공간의 '힘'이 재일제주인사회를 특징짓고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소개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재일제주인이 발행한 잡지 미디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로컬리티 창출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재일제주인의 미디어 활동에 주목한다. 해방 이후 재일제주인은 어떠한 미디어활동을 해 왔는가? 재일제주인이 발신하고 있는 미디어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재일제주인이 출신지를 떠나서도 어떻게 지역정체성을 유지하고

12) 原尻英樹「日本敗戦後の在日朝鮮人:済州人の生活史」『半島と列島のくにぐに:日朝比較交流史入門』(新幹社, 1996.09) p.202.

13) 이상봉의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硏究--在日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視角」(『한일민족문제연구』(18) 2010)과 「디아스포라적 空間으로서의 오사카(大阪) 코리안타운의 로컬리티」(『한일민족문제연구』(22) 2012)

14) 이상봉「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硏究--在日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視角」『한일민족문제연구』(18) 2010 한일민족문화학회, p.121.

www.kci.go.kr

그들만의 로컬리티를 형성할 수 있었는가를, 그들의 미디어 활동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3. 해방 이후의 재일제주인 잡지 미디어

3.1. 재일제주인 단체의 각종 회보지

현재까지 발견된 해방 이후에 발행된 재일제주인에 의한 간행물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15]

잡지명	발행처	창간	비고
한라산(漢拏山)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1964.12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기관지. 「한라산」은 부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2011년 5월에 발행한 9호가 가장 최신호에 해당됨.
제청춘추(済青春秋)	제주청년회	1967.04	제주청년회 회지로 43호(1993.03)까지 확인. 계속 발행 여부 미확인(43호를 발행한 1993년에 제주관련 단체의 병합과정에서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청년회로 재편되면서 『제청춘추』 발행도 중단된 것으로 추정됨).
재일본제주도민협회 뉴스 (在日本済州道民協会ニュース)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1968.10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회지. 첫 발간 당시는 『협회 뉴스(協会ニュース)』로 시작, 1981년에 『제주개발협회신보(済州開発協会新報)』로, 1998년에는 『재일본제주도민협회 뉴스(在日本済州道民協会ニュース)』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름. 연2회 간행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49호(2018.08)까지 발행.

15) 본고에서는 고찰의 범위를 해방 이후의 간행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방 전에도 제주도 출신자가 중심이 되어 발행된 미디어는 존재한다. 『민중시보(民衆時報)』(民衆時報社)는 오사카의 이카이노에 본사가 있었던 조선어 신문으로 1935년 6월 15일에 창간되어 월 2회 발행했으나, 1936년부터는 월 3회 발행하여 종간까지 총 27호(1936.09.20.)를 발행했다. 『민중시보』의 발행인 김문준(金文準)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체포와 투옥을 반복한, 제주도 출신의 인물이다. 『민중시보』도 발행인인 김문준의 체포로 결국 종간으로 이어졌으나, 전전의 재일조선인사회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www.kci.go.kr

탐라연구통신 (耽羅研究通信)	탐라연구회	1985	탐라연구회 회지. 발간 초기에는 격월 간행되었으나 점차 연4회로 정착. 33호(1990.12)부터는 『탐라연구회보』로 개제하여 발행. 62호(2000.02)부터는 다시 『탐라연구통신』으로 개제. 창간호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고, 113호(2012.01) 발행 사실까지 확인.
제주도(済州島)	탐라연구회	1989.04	탐라연구회 회지나 본격적인 종합문예지로서의 체제를 갖춘 잡지. 10호(2006.03)로 종간.
관제협(関済協)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1994.06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회지. 연 1회 발행되고 있으며 최신호는 21호(2018.11).
제주도연구 (済州島研究)	오사카제주도연구회	2011.12	오사카제주도연구회 회지. 일회적 간행물.

먼저, 『제청춘추(済青春秋)』는 1967년부터 1993년까지 정기적으로 발행된 재일제주청년회의 회보지이다. 재일제주청년회는 1967년 4월, 35명의 회원으로 발족한 단체로, 설립 목적은 “회원 상호의 친교를 도모하고 또한 우정, 우애하에 결속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공덕심을 배양하고 지식과 교양을 높이고, 자신의 인간성을 고양함과 함께 후배의 육성과 향토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설립 취지와 회칙을 통해 재일제주청년회는 출신 마을별로 결성된 친목회의 차원을 넘어, 제주 출신 재일청년들을 규합하고 결속하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제청춘추』는 청년회의 연간 활동 보고와 금후의 활동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고, 그 외 제주도의 역사와 풍습,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도 부정기적으로 담고 있다. 일정한 형식과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예를 들어 9호(1973.09)에는 박정희대통령의 신년사를 번역해서 싣고 있는가 하면, 13호(1975.02)에서는 시 작품이 게재되기도 하는데 지속되지는 않는다. 페이지 수도 매호마다 다르며, 30여 페이지 정도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200페이지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41호(1992.03)는 청년회 창립 25주년 기념호로 꾸며져 있고, 1993년 제주청년회가 관서제주도민협회(関西済州道民協会)의 하부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제청춘추』는 43호(1993.03)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청춘추』는 현재까지 발견된 재일제주인 관련 기록물 중 정기 간행물로서는 가장 선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www.kci.go.kr

현재 재일제주인을 결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은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와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関西済州特別自治道民協会)이다. 관서제주도민협회는 관서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재일제주인 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재일제주경제인협회(1961.09.16.창립), 재일제주도민회(1963.01.16.창립), 재일제주도친목회(1966.05.25.창립), 앞서 소개한 재일제주청년회(1967.04.18.창립), 4개의 단체가 통합협정문에 조인(1986.09.29.), 공동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모태가 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실제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는 것은 1993년이고, 이때 발족한 단체가 관서제주도민협회이다. 협회는 2006년 7월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자, 2008년부터 협회 명칭을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로 개칭, 현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관제협(関済協)』은 관서제주도민협회가 1994년 6월부터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회보지로, 2018년 11월 현재 21호까지 발행하고 있다. 『관제협』도 『제청춘추』와 마찬가지로 협회의 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싣고 있으며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현지 소식 등을 담고 있다. 창간호(1994.06)에는 도지사의 동포상점가 시찰 소식과 제주도청에 '교민실' 개설 소식을 전하고 있고, 2호(1995.07)에서는 한신ㆍ아와지(阪神ㆍ淡路)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일제주인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전달한 내용 등이 소개되고 있다. 6호(1999.07)에서는 제주도 도지사가 취임인사를 보내는 등 제주도정과의 긴밀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고, 7호(2000.07)에서도 도지사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이 제주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 사항들을 보고하고 있다. 도지사의 축사는 10호까지 이어지고 있고, 10호에서는 도지사 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축사도 발견된다. 11호(2006.11)부터는 30페이지 미만으로 회보 내용이 간결해지고 있고, 정기총회, 신년회, 성인식과 같은 행사 보고와 부인회와 청년회 소식, 매년 참가하게 된 탐라문화제 참가 소식, 그 외 야유회와 각종 친목회, 골프대회와 같은 행사 보고 형식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16호(2011.11)부터는 광고지면이 실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 지면수는 무려 18~20페이지에 이른다.

한편,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관동지방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자간의 친목 도모, 상호협조, 고향 제주도의 경제ㆍ교육ㆍ문화ㆍ관광 등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다. 이 협회는 1959년 9월에 '제주개발협회'라는 명칭으로 발기대회를 가졌다.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가진 것은 1961년 2월이고,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된 것은 1992년 7월 4일부터이다.

www.kci.go.kr

협회에서는 1968년 10월 1일에 『협회 뉴스(協会ニュース)』를 처음으로 발간한 이래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회지의 명칭은 1981년에 『제주개발협회신보(済州開発協会新報)』로, 1998년에는 『재일본제주도민협회 뉴스(在日本済州道民協会ニュース)』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일본제주도민협회 뉴스』는 대체로 12페이지 정도의 간결한 소식지이며, 다뤄지는 내용은 『관제협』과 유사하다. 한편,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는 1964년부터 기관지 『한라산(漢拏山)』을 부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16], 2011년에는 『한라산』 9호가 협회 설립 50주년 기념호로 발행되었다. 그밖에 이 협회에 의해 발행된 책자 중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지로 발행한 『애향무한(愛鄕無限)』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민회의 회지와는 달리 『탐라연구통신(耽羅研究通信)』과 『제주도(済州島)』의 발행 주체는 탐라연구회(耽羅研究会)이다. 탐라연구회는 1985년 1월, 도쿄에서 재일제주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제주도와 관련된 학습회 및 연구회를 개최하고, 회지 『탐라연구통신』을 격월로 발행해 왔으며, 1989년 4월에는 종합잡지 형태를 갖춘 『제주도』를 창간하기에 이른다. 『탐라연구통신』의 창간호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나 10호(1987.07)를 보면 탐라연구회가 편집하고, 김태봉(金泰奉)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페이지 수는 적을 때에는 8페이지인 경우도 있는 등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16페이지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200엔으로 판매되었다.

『탐라연구통신』에서는 제주 향토사서인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 1979년에 번역본으로 출판된 제주 애월 출신의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漂海錄)』(1771)과 같은 제주 관련 서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탐라문화』에서 「해방 후 제주연구 개관」을 번역하여 연재하고 있다. 그 외 작가 원수일(元秀一)이 '작은 이야기(小さな物語)'라는 연재 타이틀로 대단히 짧은 소설 작품을 게재하고 있고, 고이삼(高二三)이 독서 안내 및 서평 코너로 제주도 관련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지면수는 많지 않지만,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독자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탐라연구통신』에는 일본인 연구자의 투고도 보이는데, 11호(1987.07)에서는 고고학자 에사카 데루야(江坂輝弥)의 제주도 고대유적 탐방기를, 12호(1987.09)에서는 지리학자 다카노 후미오(高野史男)가 독일의 지리학자 헤르만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의 「제주도지지(済州島地誌)」를 소개하는 글 「지리

16) 『한라산』이 발간된 시기는 창간호(1964), 2호(1966), 3호(1967), 4호(1970), 5호(1974), 6호(1976), 7호(1981), 8호(2001), 9호(2011)이다.

www.kci.go.kr

학자 라우텐자흐의 「제주도지지」(地理学者ラウテンザッハの「済州島地誌」)」를 싣고 있다. 이어서 14호(1988.01)에는 지리학자 마쓰이 사다오(松井貞雄)가 「남원읍 과수원의 인상(南元邑の果樹園の印象)」을, 17호(1988.07)에는 시인 이시카와 이쓰코(石川逸子)의 시가 게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탐라연구통신』은 통권 33호(1990.12) 발행에 해당되는 시기에 회지명을 『탐라연구회보(耽羅研究会報)』로 개제하면서 지면과 구성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탐라연구회보』라는 명칭으로 발행되는 시기 동안 지면수는 10페이지 이내로 줄어들고, 판매가격도 100엔으로 인하되었다.[17] 내용면에서는 탐라연구회의 정기총회 및 회계정보, 탐라연구회의 월별 일지,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신문기사를 발췌해서 게재하는 등 회지의 성격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탐라연구회보』 4호에서는 12쪽으로 지면수를 늘리고 광고를 게재하면서 판매가격도 200엔으로 다시 상향되었으며 이후 대체로 12쪽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62호(2000.02)에서는 다시 『탐라연구통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5쪽으로 지면수를 늘리면서 500엔으로 판매하고 있다. 62호 편집후기를 보면 그동안 탐라연구회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인물들의 사망과 사업부진 등으로 연구회의 존속여부를 논의하게 될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도』 9호(2004.10)의 편집후기에는 2003년부터 『탐라연구통신』을 다시금 정기적으로 발행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18], 2012년 1월에 113호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논자가 실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62호까지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연구(済州島研究)』[19]는 오사카제주도연구회(大阪済州島研

17) 회지명 변경과 지면수 축소의 이유로는 2가지의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는 『탐라연구회보』의 편집과 발행이 탐라연구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탐라연구통신』의 발행인으로 참가해 온 김태봉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탐라연구회에서 본격적인 잡지 『제주도』를 발행하게 됨으로써 『탐라연구통신』의 일부 기능이 『제주도』로 전환되면서 연구 영역은 사라지고 정보교류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 耽羅研究会運営委員一同「読者の皆さまへ」『済州島』(9号, 2004.10) p.126.

19) 일본에서 발행된 『제주도연구(済州島研究)』는 2종류가 있다. 오사카제주도연구회가 발행한 『제주도연구』 외에, 가나가와대학(神奈川大学)의 역사민속자료학연구과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제주도연구회(대표:金泰順)에서 2009년 2월에 창간한 회보지가 있다. 이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제주도의 민속문화를 동아시아 속의 제주도라는 시점에서 연구하고, 제주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연 1회 발행되고 있는 『제주도연구』는 창간호(2009.02)에서 5호(2013.12)에 이르기까지 주로 제주도의 영등굿을 비롯한 굿 문화와 해녀들의 잠수 문화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우도와 추자도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있는 6호 발간이 가장 최신호가 된다.

www.kci.go.kr

究会)가 2011년 12월에 발간한 것으로, 일회적인 간행물로 보인다. 2004년 4월에 발족한 오사카제주도연구회의 대표 양영후(梁永厚)의 글에 의하면, 연구회는 “근대 오사카와 제주도와의 사이의 이동으로 시작되는 역사와 현재, 사람들의 생활과 풍토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연구회를 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갈 목적”[20]으로 결성되었다. 또한 2009년 봄, 탐라연구회로부터 『제주도(済州島)』의 11호 이후를 공동으로 발행하자는 요청을 받고 준비한 원고이지만, 결국 탐라연구회 측의 사정으로 공동발행은 무산되었고 2년 후인 2011년에 단독으로 『제주도연구』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종합문예지 『제주도』

『제주도』는 탐라연구회의 편집과 발행으로 신칸샤(新幹社)에서 발매된 잡지이다. 앞에서 살펴본 탐라연구회의 회지 『탐라연구통신』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체재와 구성면에서 종합문예지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창간호의 편집후기를 보면 당분간은 정기 발행이 어렵겠지만, 연 2회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1] 그러나 연 2회 발행이 실현된 것은 1989년 한 해에 지나지 않고, 3호부터는 연 1회 발행으로 정착된다. 8호(1996.05) 발행에서부터 연 1회가 지켜지지 못하고, 9호(2004.10) 발행까지 상당한 공백 기간을 갖게 된다. 김민주(金民柱), 양성종(梁聖宗), 고이삼(高二三), 송창빈(宋昌彬) 4명의 편집위원으로 출발한 『제주도』는 총 10권을 발행하는 동안 편집위원의 교체가 잦은 편이고, 마지막까지 『제주도』 발행에 참여한 인물은 고이삼과 양성종 정도이다. 마지막 10호(2006.03)에서는 여성연구자들이 새롭게 편집에 참여하여 계속 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종간사도 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재일조선인에 의해 발행된 수많은 문예잡지 중, 지역명을 단 잡지는 지금까지 『제주도』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재일제주인이 결성한 단체와 그들이 발행한 회지를 소개했지만, 이들은 모두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었다. 이에 반해 탐라연구회는 “제주도에 관해 공부하고 그것을 후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의 역사 · 문화면에서 <제주도>를 살피면서, 수천 년에 걸쳐 길러지고 이어져 온 그 정신을 이해”[22]하기 위해 출발한

20) 梁永厚「大阪済州島研究会の歩み」『済州島研究』(大阪済州島研究会, 2011.12) p.9.
21) 金民柱「ハニボルム」『済州島』(創刊号, 1989.04) p.109.
22) 編集部「済州島四 · 三講演会を終えて」『耽羅研究通信』(16号、1988.05) p.2.

www.kci.go.kr

단체이다. 탐라연구회는『제주도』의 창간사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옛날부터 역사는 어느 시대든 지배하는 자에 의해 기록되어 왔다.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도 그러한 예로, 항상 주변에 내몰리고,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을 강요당해 왔다. 원래 역사는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반영한 향토사를 기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랑할 수 있는 향토를 자각하게 되고, 또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키게 된다고 믿는다. 물론 우리들은 미력하다. 재일하는 제주도인의 역사와 생활을 배경으로 내외의 연구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추구해 가고자 한다. 이 잡지를 그것을 위한 '광장'으로 삼고 싶다.[23]

해방 직후에 발행된『민주조선(民主朝鮮)』(民主朝鮮社)의 경우, "과거 3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왜곡된 조선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제부터 전개되려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건설에 대한 우리들의 구상을 이 소책자로, 조선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강호의 현인들에게 그 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하는"[24]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잡지가 조선의 역사와 문화라는 큰 틀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제주도』는 잡지명 그대로 모국인 한국이 아니라, 제주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제주도』는 "재일하는 제주도인"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잡지인 것이다. 왜 조국의 역사와 문화가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인가?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당시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고이삼(高二三)도 "제주도 출신자는 왜 제주도에 그렇게도 연연하는 것인가"[25]라는 주변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지만, 그 답변은 발행되는 잡지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제주도』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총 10권을 발행하는 동안『제주도』는 대체로 창간호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구성면에서는 종합잡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에세이를 싣고 있는 '돌하루방(トル・ハルバン)' 코너, 사진 자료인 '그라비아', 하늬바람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 '하니보름(ハニボルム)'에서는 독자의 투고를 통해 독자들의 목

23)「創刊のことば」『済州島』(創刊号, 1989.04) p.1.
24)「創刊の辞」『民主朝鮮』(創刊号, 1946.04) *페이지 표기 없음.
25) 高二三「ハニボルム」『済州島』(創刊号, 1989.04) p.108.

www.kci.go.kr

소리를 담고 있는 코너 등이 고정되어 있고, 매호마다 시와 소설 작품을 싣고 있다. 그 밖의 지면은 제주도에 관한 연구 논문, 좌담회, 제주도 관련 문헌 소개, 제주도의 옛날이야기, 제주도의 마을 소개 등으로 채워져 있고, 재일제주인의 친목회 소개 등도 연재되고 있다.

집필진은 제주도 출신자만이 아니라 일본인과 제주도내의 연구자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지리학자 다카노 후미오(高野史男)는 고대 탐라의 지리에 관한 연구논문 「탐라고대지리고(耽羅古代地理考)」를 1호와 2호에 걸쳐 게재하고 있고, 한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수필가인 고은(高銀)의 『제주도』를 번역하여 1호에서 4호까지 연재하고 있다. 그밖에 전국 각지의 제주도 출신의 일본인 약 30명에 의해 1976년에 결성된 '제주도회(済州島会)' 회원들로부터도 에세이 형태의 투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는 원수일(元秀一), 김길호(金吉浩), 김중명(金重明), 김석범(金石範) 등 제주도 출신의 소설가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창간호에는 원수일이 단편 「금목서(キンモクセイ)」를 발표하고 있고, 5호에서는 김길호의 「결혼행진곡(結婚行進曲)」이, 10호에서는 제주 작가 김관후(金官厚)의 「두 노인(ふたりの老人)」[26]을 양철호(梁哲豪)의 번역으로 게재하고 있다. 김중명은 소설 작품이 아닌 기행문을 기고하고 있는데, 「결혼식(結婚式)」(6호:1993.10), 「자리(チャリ)」(7호:1994.12), 「벌초(伐草)」(8호:1996.05), 「오름(オルム)」(9호:2004.10)이란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그리고 10호에는 「제주도는 소설을 쓰는 힘(済州島は小説を書く力)」이란 제목의 김석범의 인터뷰 기사를 담고 있다.

1985년 1월, 탐라연구회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일본에서 제주도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한 학습회에서 출발했으나, 이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역사를 공부하게끔 한 배경에는 제주4·3사건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회의 활동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추도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에서 4·3사건 기념행사를 주도하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등의 활동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일제주인뿐 아니라 제주도라는 지역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일본인 독자로까지 외연을 넓혀갔던 『제주도』는 결국 10호 발행으로 종간되고 말았다. 잡지의 계속 발행이 어려워진 이유에 관해서는 8여년 만에 9호를 발행한 편집후기 문장에서 "당회 운영의 중심 멤버의 사업부진과 사거" 뿐 아니라 시기를 같이 하여 "불운한 사건이 중첩되어 잠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26) 김관후의 「두 노인」은 4·3사건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그려낸 단편작으로 소설집 『어허렁 달구』(한국문학도서관, 1999.09)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www.kci.go.kr

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27],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재일제주인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이 주체가 되어 발행되어오던 수많은 잡지들이 중단 혹은 종간을 하게 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일조선인이 주축이 되어 발간되어온 수많은 종류의 잡지들 가운데 탐라연구회의 『제주도』는 지역명을 내건 종합문예지로서는 타 지역 출신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4. 재일제주인의 지역정체성과 로컬리티

3장에서는 재일제주인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와 그들이 발행한 회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재일조선인의 출신지역별 커뮤니티 형성은 제주도 출신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28] 비교적 출신자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양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신 마을 단위로까지 친목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재일제주인의 경우, 재일조선인을 규합하는 최대의 단체인 민단과 총련이라는 양대 조직 외에도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와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와 같은 재일제주도민협회, 출신 마을별 친목회와 친족회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제주도』(탐라연구회)와 『제주도연구』(오사카제주도연구회)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친목회와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29] 이러한 마을 단위의 친목회는 일본에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주도 현지인 신촌 마을에도 신촌향우

27) 耽羅研究会運営委員一同「読者の皆さまへ」『済州島』(9号, 2004.10) p.126.

28)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뿌리를 둔 재일조선인의 친목단체인 '재일본경상남도도민회(在日本慶尚南道道民会)'는 도쿄(東京), 치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긴키(近畿), 효고(兵庫),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広島), 야마구치(山口), 교토(京都) 등 9개 지역별로 각각 결성되어 있다. '재일경상북도도민회'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친목조직을 결성하여 활동 중이며, 이 외에 전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는 '재일전라남도도민회'와 '전라북도도민회', 충청 지역의 경우 '재일관동지구충청도민회(在日関東地区忠清道民会)' 등의 단체도 현재 활동 중이다.

29) 『제주도』에서는 '재일도민의 친목회 순회'라는 코너를 통해 재동경애월친목회(在東京涯月親睦会), 재동경함덕인친목회(在東京咸德人親睦会), 재일본한경친목회(在日本翰京親睦会), 재일본고내리친목회(在日本高内里親睦会), 재일오사카제법건친회(在日大阪済法建親会)를 소개하고 있고, 『제주도연구』에서는 재일신촌리친목회(在日新村里親睦会)와 재판수산리친목회(在阪水山里親睦会)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는 만큼, 재일제주인의 마을 단위 친목회는 이 외에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www.kci.go.kr

회가 결성되어 있고, 서울 지역에는 재경신촌향우회가 결성되어 있다. 요컨대 제주도 출신자는 제주라는 섬을 떠나서도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에 의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일조선인사회에서 출신지역별 단체 결성이 특수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들 단체가 모두 재일제주인과 같은 미디어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미디어 활동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양태는 도민회가 주축이 되어 친목단체 내부에서 소비되어지는 소식지에서 시작하여, 탐라연구회가 발행한 『탐라연구통신』과 『제주도』와 같이 외부세계를 향해 발신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탐라연구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이고, 종합문예지 『제주도』가 창간되는 것은 1989년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사회의 미디어 현황은 어떠할까? 198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의 에스닉 잡지는 1970년대에 비해 그 종류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일의 세대교체와 함께 잡지의 성격은 크게 변화했다. 1980년대의 경우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비하면 다소 침체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가와 민족이라는 내셔널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에스닉 잡지는 발행되고 있었다. 1975년에 창간된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三千里社)가 50호로 종간하는 것은 1987년이다. 『계간 삼천리』가 종간되면서 그해 11월에는 『계간재일문예 민도(季刊在日文芸 民涛)』(民涛社)가 창간되었고, 1989년 8월에는 『계간 청구(季刊青丘)』(青丘文化社)가 창간되었다. 이와 같이 내셔널아이덴티티를 표방하는 에스닉 잡지의 발행은 이어지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뉴커머들을 위한 생활정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았으며, 온라인지라는 새로운 미디어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30] 이러한 시대적인 추이 속에서 『탐라연구통신』과 『제주도』와 같은 로컬리티를 강하게 드러내는 잡지가 등장한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에스닉 잡지는 다국적 ·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에스닉 미디어 활동의 중심적 위치에 있던 재일조선인 외에도 다양한 국적과 언어의 에스닉 잡지가 출현하기에 이른다. 다국적 · 다문화 현상은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듯 재일제주인은 『탐라연구통신』

30) 소명선(2017)「재일한인 에스닉 미디어의 계보와 현황」『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5 연구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소명출판 p.294.

www.kci.go.kr

과 『제주도』와 같은 잡지를 발행하면서 그들의 지역정체성을 더욱 강고히 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탐라연구회의 결성과 그들의 활동은 제주도내의 연구자들의 연구동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에서는 1946년 8월에 도내 연구자들에 의해 제주도연구회가 결성되었고, 1978년에는 명칭을 제주학회로 개칭하여 새롭게 출발한다. 국내에서 로컬리티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대 이후이지만,[31] 제주도에서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듬해부터 지역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학회에서는 1984년부터 『제주도연구』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도쿄에서 탐라연구회가 결성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85년으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탐라연구회의 결성은 이와 같은 출신지역의 연구동향과 『제주도연구』 발행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재일제주인사회가 출신지인 제주도와 대단히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제주도와 지역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실은 재일제주인이 발행한 미디어의 내용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탐라연구회의 『제주도』가 제주지역의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해서 전재하고 있고, 학술 행사 교류를 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청춘추』와 『관제협』을 비롯한 각종 회보지의 경우, 각 단체의 활동 내용뿐 아니라 제주도 현지 소식도 활발히 전하고 있으며, 특히 『탐라연구통신』은 제주 현지에서 발행되는 신문기사를 전재(転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90년 6월 2일에 창간된 제주지역 일간지 『제민일보(済民日報)』가 1997년 2월부터 오사카 현지에서 일본어판 『제민일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출신지역의 신문을 일본에서 일본어로 구독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사실도 한몫하고 있으나, 『탐라연구통신』이 전재하고 있는 기사는 『제민일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재일제주인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제주도 현지의 역사와 문화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회보지를 통해 그들이 제주도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신마을별로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이 출신지를 떠나 있어도 확고한 지역정체성과 함께 제주도라는 로컬리티를 형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의 활발한 미디어 활동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재일제주인의 잡지 미디어 및 미디어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 수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2009)『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혜안, p.73.

www.kci.go.kr

있는 것은, 재일제주인의 경우 구식민지종주국과 구식민지 혹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적 아이덴티티보다 제주도라는 로컬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재일제주인에게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레벨의 귀속보다 '제주도'라는 로컬 레벨의 귀속의식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일제주인에 의한 미디어활동은 거주지인 일본의 로컬리티와 출신지인 제주도의 로컬리티 사이를 횡단하는 트랜스로컬리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일제주인이 발행하는 미디어는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라기보다 트랜스로컬 네트워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재일제주인이 발행한 잡지 미디어를 대상으로 서지적 고찰과 함께 이들의 미디어 활동의 의미에 관해 고찰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사카라는 지역과 재일조선인, 특히 제주도 출신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제주도 출신자의 커뮤니티와 그들의 생활사에 주목한 것으로 타 지역 출신자와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즉, 도일의 역사와 배경이 타 지역 출신자와 상이하고, 도일의 형태 또한 친족과 혈족, 그리고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일본 내에서도 그들 고유의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 출신자는 재일조선인이라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재일제주인의 특수성을 방증하는 근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재일제주인의 경우, 재일조선인을 규합하는 최대의 조직인 민단과 조총련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래로는 출신마을 단위의 친목회와 친족회 등의 소규모 단체가 존재하고, 위로는 제주도민회가 있다. 제주도민회는 각각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을 대표하는 두 개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데, 재일제주인의 미디어 활동은 바로 이러한 제주도민회가 주축이 되어 1960년대부터 전개되었다. 『제청춘추』와 『재일본도민협회뉴스』, 그리고 『관제협』과 같은 회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 단체가 제주도 및 제주도정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각각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회원들간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한편, 출신지인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

www.kci.go.kr

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탐라연구회가 발행한『탐라연구통신』과『제주도』는 친목 단체의 회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친목 단체의 회지는 주로 회원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으나,『탐라연구통신』과『제주도』는 외부세계를 향해 발신되고 있었다. 특히『제주도』에는 원수일, 김길호, 김중명, 김석범과 같은 작가의 참여뿐 아니라 일본인과 제주도내의 연구자들의 기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일하는 제주도인이 그들의 재일의 경험을 배경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추구하고자 창간한『제주도』는 고대역사서와 지리서 등의 번역소개,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옛날이야기 외에도 제주도의 마을을 소개하거나 일본 내의 재일제주인의 삶의 현장과 친목단체를 소개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탐라연구회의『제주도』발행은 제주도의 로컬리티를 일본사회로 발신함과 동시에 제주도와의 연계를 통해 트랜스로컬 네트워크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일제주인이 발행한 혹은 발행하고 있는 각종 미디어에 관한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재일제주인이 일본사회에서 결속을 다지고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며 독특한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데에는 그들의 활발한 미디어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의 미디어 활동은 일본사회가 다국적 ·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가는 가운데,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듯 제주도의 로컬리티를 창출해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잡지 미디어 역사상에서도 이례적인 특수한 현상으로, 재일제주인을 재일조선인이라는 동일한 범주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밝힌 논자의 자문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재일제주인이 발행한 미디어에 관한 서지적 고찰을 통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타 지역 출신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재일제주인의 활발한 미디어 활동과 일본사회에서 활동하는 문인들 중 제주도 출신자의 수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추정은 가능하다. 재일제주인에게는 한국사회와 일본사회, 그리고 재일조선인사회를 향해 그들의 목소리를 발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타 지역 출신자보다 강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욕구의 근저에는 일찍이 유배의 섬, '빨갱이 섬' 등으로 제주도가 받아온 역사적 탄압과 억압,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과 오인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2009)『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혜안, p.73.
소명선(2017)「재일한인 에스닉 미디어의 계보와 현황」『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5 연구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소명출판, pp.271-312.
金石範(1996)『火山島Ⅳ』文芸春秋, p.239.
金賛汀(1985)『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書店, pp.86-87.
杉原達(1998)『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p.55, p.77, pp.92-93, p.159.
原尻英樹(1996)「日本敗戦後の在日朝鮮人:済州人の生活史」『半島と列島のくにぐに:日朝比較交流史入門』新幹社, p.182, p.202.
在日本関東済州島民協会 http://jejudomin.org/about/develop/(검색일:2018.12.01.)
関西済州特別自治島民協会 http://www.kansaijeju.org/about.html(검색일:2018.12.01.)
日本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147242(검색일:2018.12.01.)
「일본'탐라연구회' 명맥 끊기나」『한겨레』2010.01.0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6788.html(검색일:2019.01.10.)

≪텍스트≫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漢拏山』9号(2011.05)
済州青年会『済青春秋』9号(1973.09)～43号(1993.03)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在日本済州道民協会ニュース』30号(2009.05)～49号(2018.08)
耽羅研究会『耽羅研究通信』10号(1987.04)～62号(2000.02)
耽羅研究会『済州島』創刊号(1989.04)～10号(2006.03)
関西済州(特別自治)道民協会『関済協』創刊号(1994.06)～21号(2018.11)
済州島研究会『済州島研究』創刊号(2011.12)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3.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www.kci.go.kr

<要旨>

解放以降の在日済州人の雑誌メディア研究
－在日済州人の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とローカリティ－

蘇明仙

本論文は、植民地解放以降の在日済州人が発行した雑誌メディアを対象にし、刊行物の書誌的検討を通して在日済州人のメディア活動の意義につい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在日済州人の場合、多様な形の人的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ているが、そのなかでメディア活動を主導してきたのはそれぞれ関東と関西地方を拠点とする済州道民会である。道民会が発行している各種の会誌からは彼らが済州島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保ちながら、会員同士の結束と親睦を深めていくと同時に、済州島の経済的発展へつながる道をともに模索している姿が伺えた。一方、済州島の歴史と文化を追究するために結成された耽羅研究会の『耽羅通信研究』と『済州島』は、親睦団体の会誌とは異なり外部世界に向かって発信している雑誌である。特に総合雑誌『済州島』は済州島のローカリティを日本社会に発信するとともに、済州島との連携を通してトランスローカル・ネットワークとして機能していた。在日済州人が日本社会の中で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を保ちながらローカリティを形成していく過程で彼らのメディア活動は大きい役割を果たしてきたといえ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いう時代的潮流に逆行するかのように独特のローカリティを創り出している在日済州人のメディア活動は、在日朝鮮人の雑誌メディア史上にも先例のない特殊な現象である。

A study on the magazine media of the Jeju Islanders in Japan after World War II
－regional identity and locality of the Jeju Islanders in Japan－

So, Myung-Sun

This paper studies magazine media published by the Jeju Islanders in Japan after World War II, and considers the significance of their media activities along with a bibliography of the publications in Japan. The Jeju Provincial People's Association, which is based in the Kanto and Kansai regions, has led the media activities of the Jeju Islanders in Japan. From the various types of the journal published by the Jeju Provincial People's Association, I confirmed that they sought to maintain their identity as Jeju Islanders, deepen the unity and friendship among their members, and seek a path that would lea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eju Island. On the other hand, in the group of Jeju Islanders in Japan, ther is a Tamra Study Group that was formed to pursue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Island. "Tamra Communication Study" and "Jeju Island" published by Tamra Study Group are the magazines which transmit it toward the outside world unlike the Journal of the friendship organiz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Jeju Island", the island's locality was transmitted to Japanese society, and it functioned as translocal network through cooperation with Jeju Island. Their media activiti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preserving regional identity and forming locality in the Japan Society of Jeju Islanders. The media activity of the Jeju Islanders in Japan who are creating a unique locality against the historical tide of globalization is a special phenomenon unprecedented in the magazine media history of Zainichi Koreans.

www.kci.go.kr